



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COMPANY RESEARCH / No.02

OCI홀딩스

KOSPI 010060 · PORTFOLIO & CAPITAL ALLOCATION

TDI 철수, 외형보다 수익성을 선택하다

한계사업 정리와 첨단소재 집중을
이익·현금흐름으로 읽는다

좋은 철수는 매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현금 부담을 줄이는 결정이다.

분기 업황의 회복과 사업 존속의 경제성을 구분하고,
OCI(주)의 사업 정리가 OCI홀딩스에 전달되는 경로를 분석한다.



01 / RESEARCH VIEW

정리의 방향은 긍정적, 성과는 현금에서 나온다

이번 결정은 새로운 성장사업의 확보가 아니라, 계속 투자할 사업을 고르는 선택이다.

TradeLens 판단 | 매출 방어보다 자본의 생산성을 우선한다

TDI 사업 정리는 OCI홀딩스의 자본배분 방향에서 긍정적이다. 한계사업의 외형을 유지하기보다 남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판단이다. 다만 그룹 전체의 이익을 한 번에 바꾸는 사건으로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핵심은 현금 부담 감소 → 잔존 비용 통제 → 재투자 성과다.

질문	보고서의 판단	판단의 근거
왜 긍정적인가	사업의 수보다 자원의 효율	공시상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TDI를 정리하고, 별도 회사 발표에서는 반도체 소재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1] [3]
TDI는 계속 적자였나	그렇게 단정하지 않는다	2분기에는 TDI 판매량·가격 회복이 설명됐다. 인용 자료에는 TDI 개별 사업의 손익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4]
큰 폭의 이익 증가인가	규모는 아직 산정 불가	과거 매출은 절감액이 아니다. 회피할 비용·유지투자과 종료 비용을 함께 봐야 한다.
홀딩스에 무엇이 남나	현금 배분의 선택권	자회사에서 생긴 여력이 재투자·부채 관리·배당으로 이어질 때 지주사 차원의 성과가 된다.

이번 공시를 읽는 관점

한 분기의 제품 가격보다, 다음 설비투자 이후에도 돈이 남는지가 중요하다. 가동을 멈추면 매출은 줄어든다. 그러나 지출도 줄고 필요한 투자가 사라질 수 있다. 그 순효과가 양수라면 축소는 후퇴가 아니라 사업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다.

보고서가 남기는 한 문장

OCI홀딩스를 이번 사안만으로 새로운 성장기업으로 규정하기보다, 한계사업을 줄이고 자원의 사용처를 바꾸는 그룹으로 읽는다. 좋은 정리와 좋은 재투자는 별도의 성과이며 둘 다 필요하다.



02 / DISCLOSURE MAP

중단 주체는 OCI(주), 분석 대상은 OCI홀딩스

5.87%는 사업회사 매출의 비중이다. 지주회사 전체의 감소율로 읽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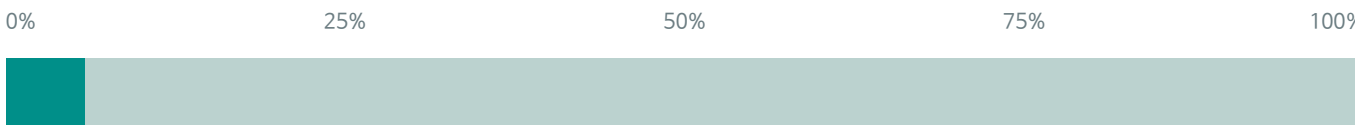
구분	발표 내용과 기준
실제 중단 사업	OCI(주)(456040)의 TDI 제조·판매
결정 / 중단 예정	2026.09.29 이사회 결정 / 2026.12.18 중단 예정
중단 대상 매출	1,179.47억원 (117,947,181,460원)
비교 분모	OCI(주)의 2025년 연결 매출 2조 94.29억원
회사 제시 사유·영향	한계사업 정리 / 수익성 개선.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

출처: 공시 재현 보도·별도 공시 기사 대조. 금액은 2025년 연결 기준이다. [1] [2]

어떤 사업을 접는가

TDI는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자동차 내장재·가구·침구 등에 사용된다. [7] 이번 결정은 이 제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것이다. 사업 회사 전체의 영업 중단이나 그룹의 폴리실리콘 사업 중단으로 읽지 않는다.

OCI(주)의 2025년 매출에서 TDI가 차지한 위치



TDI 5.87%

기타 사업 94.13%

전체 매출을 100으로 둔 구성비. 원자료로 직접 계산했다. 이익·자산·기업가치 비중이 아니다.

금액의 의미 | 1,179억원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거래는 아니다

기재 금액은 중단 대상 사업의 과거 매출이다. 매각대금도 손실액도 아니다. 인용 자료에는 자산 매각액·폐쇄비용·절감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금 유입을 먼저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2]

자료: 2026년 9월 29일 영업정지 공시를 수록한 보도 [1] [2]. 보도에 기재된 DART 접수번호: 20260929800197.
공시 관련 사항은 위 보도 기준이며, 세부 출처와 인용 범위는 11쪽 참조.



03 / GROUP ECONOMICS

OCI홀딩스의 이익은 TDI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업회사 개선과 그룹의 수익구조를 같은 범위로 놓지 않는다.

OCI홀딩스는 자회사 관리·신규 사업 투자를 수행하며, OCI(주)는 화학 사업회사다. 그룹의 주요 사업에는 에너지와 도시개발 등도 있다. 자회사 사업의 매출 비중을 지주회사 전체의 손익 민감도로 바꿀 수는 없다. [6]

OCI(주)	에너지 사업	기타 사업
화학 사업회사 이번 TDI 정리의 실행 주체	폴리실리콘·태양광 등 그룹의 다른 손익 동인	도시개발 등 별도 사업·현금흐름

OCI홀딩스 주요 사업의 역할 지도. 전체 계열사·지분율을 표시한 조직도는 아니다. [6] [8]

같은 분기라도, 실적이 바뀐 이유는 다르다

2026년 2분기 연결	매출	영업이익	전년 동기 영업손익
OCI홀딩스 [5]	10,231	1,080	-803
OCI(주) [4]	5,350	433	-23

단위: 억원. 회사 실적 발표를 전한 보도의 반올림값. OCI(주)는 잠정실적 발표 기준이다. 두 회사 수치를 더하지 않는다.

범위	2분기 개선 배경	이번 TDI 정리와의 관계
OCI(주)	석유화학 제품 판매·가격과 반도체 소재 실적 개선 [4]	회사 전체 흑자가 TDI 단독 흑자를 뜻하지 않는다.
OCI홀딩스	미국 La Salle 500MW 태양광 프로젝트 지분 50% 매각 성과 등 [5]	프로젝트 실현 이익과 제조사업 정리는 별도 경로다.

분석 | 이번 결정은 부담을 낮추는 조치이지, 모든 성장 동인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룹 실적은 남은 화학사업의 경쟁력과 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행에도 달려 있다. TDI 철수 효과만 떼어 그룹 전체의 이익 전환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 대신 자본을 계속 투입할 사업을 선별한다는 의미가 있다.



04 / CYCLE VERSUS STRUCTURE

판매가 회복돼도, 계속할 사업은 아닐 수 있다

최근 업황 반등은 철수 판단을 반박하는 출발점이지, 존속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확인한 사실 | 2분기에는 TDI 판매량·가격 회복이 설명됐다

7월 OCI 실적 보도에는 정기보수 이후 제품 판매량이 회복되고, 공급 차질로 TDI 판가가 상승했다는 회사 설명이 있다. “판매가 계속 나빠져서 중단한다”는 단선적인 서사는 자료와 맞지 않는다. 다만 개별 TDI 영업이익은 제시되지 않았다. [4]

분기 실적과 사업 존속이 묻는 질문

관점	분기 실적을 보는 질문	계속 투자할지를 보는 질문
수요·가격	이번 분기의 출하와 판가가 회복됐는가	일시 공급 차질이 사라져도 수익이 남는가
생산·비용	정기보수 이후 가동률이 높아졌는가	보수·안전·품질 투자를 포함해 회수가 가능한가
설비·자원	기존 자산을 활용해 매출을 냈는가	추가 자본·인력의 기회비용을 감당하는가
평가 단위	최근 분기의 매출·영업이익	경기 순환을 거친 현금창출력과 실행 위험

위 질문은 TradeLens의 분석 기준이다. 회사가 해당 수치나 내부 투자수익률을 공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결정에서 읽을 수 있는 신호

회사가 “한계사업”으로 규정한 사업을 정리하는 결의는 단기 가격 반등보다 자원의 장기 사용처를 중시하는 신호로 해석한다. 이미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려고 새 돈을 계속 넣는 것과, 앞으로 남은 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후자가 자본배분의 기준이어야 한다.

반대 논리도 남긴다 | 좋은 가격 국면의 현금 기회를 포기할 수 있다

반등이 오래 지속되고 추가 유지투자가 작다면 존속의 편익이 더 클 수 있다. 폐쇄 뒤에도 고정비가 많이 남는 경우 역시 그렇다. 그래서 철수의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되, 확정 절감액과 수익 개선 폭을 미리 채워 넣지 않는다.



05 / CASH FLOW LAB

철수의 이익은, 매출이 아니라 차액이다

설명용 가정 모델 | 실제 TDI 손익이나 회사의 비용 계획을 추정한 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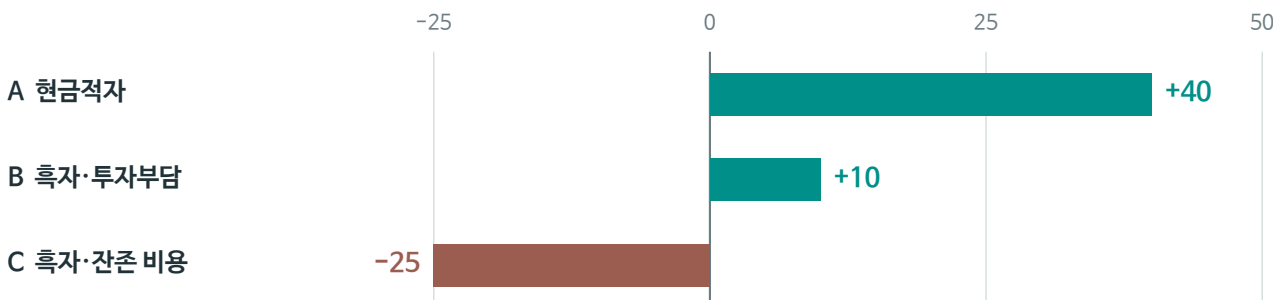
계산의 출발점 | 연간 현금 개선액 = $M - C - S$

C는 사업을 계속할 때의 현금 영업기여, M은 중단하면 피할 유지투자, S는 중단 뒤 남는 연간 현금비용이다. 존속 시 현금은 $C - M$, 중단 후에는 $-S$ 이므로 두 대안의 차이가 $M - C - S$ 다.

설명용 상황	C	M	S	연간 현금 개선
A 현금적자 사업	-30	20	10	+40
B 현금흑자·유지투자 부담	10	30	10	+10
C 현금흑자·잔존 비용 부담	30	20	15	-25

단위: 억원/년. 모든 입력은 임의 가정. C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존속 시 현금 영업기여다. 존속 시 부담하던 비용 중 중단 후에도 남는 금액을 S로 둔다.

같은 철수라도 현금 효과의 방향은 달라진다



0은 존속과 중단의 연간 현금이 같은 지점이다. 양수는 중단의 현금상 이점, 음수는 존속 대비 불리함을 뜻한다.

계산이 바꾸는 결론 | 흑자사업을 접어도 현금은 좋아질 수 있다

B에서는 현금 영업기여가 10억원이어도 유지투자 30억원을 피하면 연간 현금이 10억원 개선된다. C처럼 남는 이익이 크고 비용이 계속 남으면 정리는 불리하다. “적자 제거”라는 말보다 회피 가능한 지출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세금·일시 정리비·재고 및 채권 회수·자산매각·신사업 투자·할인은 미반영. 실제 사업가치·실적 전망이 아니다.



06 / EXIT COST & PAYBACK

절감 효과보다 정리 비용이 먼저 나올 수 있다

사업 중단의 방향과, 그 결정이 현금으로 보상받는 시점을 구분한다.

손익계산서가 먼저 나빠져도 미래 현금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정리 발표가 긍정적으로 읽혀도 실제 현금 지출이 크면 회수기간이 길어진다. **첫해 비용과 반복 효과를 분리**해야 한다.

항목	이익과 현금에 미치는 의미	계산 원칙
손상·제각 등	회계상 비용이지만 당기 현금 지출과 다를 수 있음	현금 정리비와 구분
인력·계약·설비 정리	실제 지급 일정에 따라 현금 부담 발생 가능	발생 여부·충당·지급을 구분
재고·채권·자산 회수	회수액과 시점이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음	장부금액을 회수액으로 간주하지 않음

순초기 정리현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

순초기 정리현금 E = 현금 정리비 - 순설비 처분대금 - 순운전자본 회수액. 회수액의 이중 계산 없이 E가 양수이며, 연간 순현금 개선이 지속된다는 가정이다.

E / 연간 현금 개선액	20억원	50억원	100억원
100억원	5.0년	2.0년	1.0년
200억원	10.0년	4.0년	2.0년
300억원	15.0년	6.0년	3.0년

단순 회수기간 = E ÷ 연간 순현금 개선액. 전부 설명용 가정이며, TDI 정리 비용·절감액을 추정한 것이 아니다.

판단 기준 | 비용을 작게 보는 것만으로 좋은 철수가 되지는 않는다

순정리현금 200억원에 연 50억원의 개선이면 단순 회수기간은 4년이다. 같은 비용에서 개선액이 20억원이면 10년이다. **회수가 길수록 절감 효과의 지속성과 비용 재발 여부가 더 중요해진다.** 실제 사업 경제성 검토에는 할인·세금·단계별 집행도 필요하다.

이번 공시를 읽는 포인트: 일회성 회계비용만 보고 실패로 단정하거나, 미래 절감만 강조해 초기 현금 부담을 무시하지 않는다. 종료 뒤에도 남는 비용이 줄어들어야 정리의 경제성이 살아난다.



07 / WHAT REM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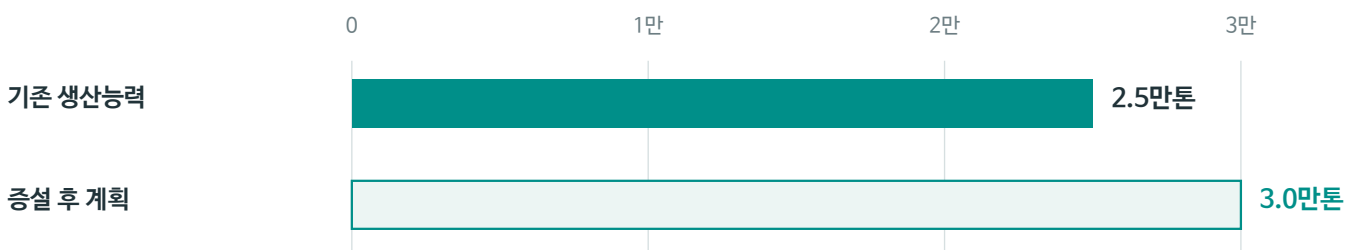
남길 사업은 이미 있다: 반도체 소재의 확장

TDI 중단과 같은 날, OCI(주)는 첨단소재의 기존 기반과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9월 29일 OCI의 공식 발표는 군산·익산의 반도체 소재 기반, 인산 증설, 신규 소재·웨이퍼 재생 계획을 제시했다. **새 업종으로의 막연한 이동보다 기존 공정·고객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다.** 다만 TDI에서 절약할 자금의 구체적인 재투자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3] [8]

남길 사업의 기반	회사 발표로 확인한 내용	상업화의 다음 기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군산 연산 4,700톤 생산능력 [3]	가동률·승인 품목·수율·계속 공급
인산	연산 2.5만톤 → 3만톤 증설 진행 중 [3]	완공·검수·실제 판매량·증분 이익
과산화수소	익산에서 반도체 세정·식각 소재 생산 [3]	고순도 제품 믹스·품질·고객 채택
신규 소재·웨이퍼 재생	스페셜티 에천트 개발 및 패키징용 웨이퍼 재생 사업 확대 계획 [3]	고객 승인·양산 계약·투자 회수

인산 증설은 20%의 능력 확대, 아직 매출 증가는 아니다



단위: 톤/년. 같은 0 기준의 명목 생산능력 비교. 빈 테두리는 계획 규모이며, 준공 또는 가동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3]

분석 | “정리”와 “성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기존 반도체 소재 기반이 있다는 점은 재투자 논리의 장점이다. 그러나 증설 자체가 수익성의 증거는 아니다. 고객 승인과 가동률, 단위당 현금기여가 뒷받침돼야 TDI 정리가 더 나은 자원 배분으로 완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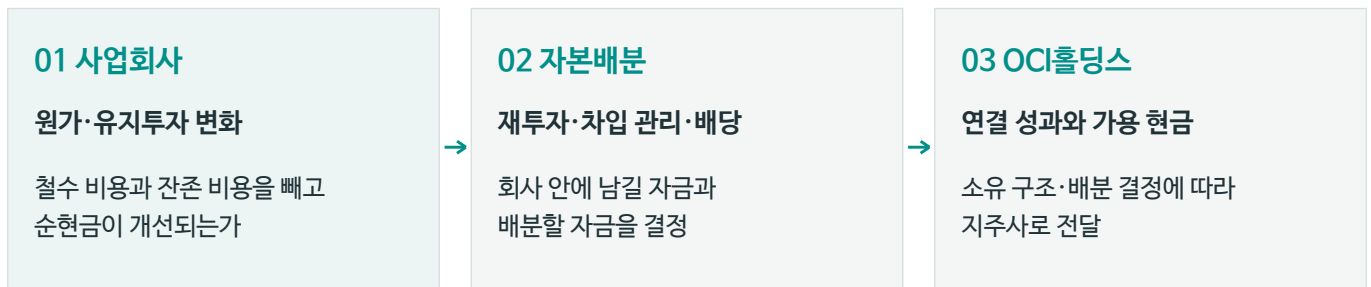
공식 게시일 9월 29일과 특화단지 지정일 9월 17일은 구분했다. 단지 전체 투자·지원 규모를 OCI 개별 투자액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08 / HOLDING COMPANY LENS

자회사의 개선은 지주사의 현금과 같지 않다

남은 사업의 이익이 늘어도, 배당과 재투자에 쓰이는 경로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OCI홀딩스의 역할은 계열사의 자원을 관리하고 신규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6] 사업회사에서 비용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주회사가 바로 그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익 개선 → 현금 회수 → 사용처 결정**의 단계를 나누어 봐야 한다.



현금 전달 경로의 분석도다. 자회사 지분율·정해진 배당액·자금 이동 완료를 나타내지 않는다.

보고서가 앞으로 분리해서 볼 숫자

분리할 항목	잘못 읽기 쉬운 모습	올바른 확인
이익률 / 절대 이익	매출이 줄어 비율이 높아진 것을 전면 개선으로 인식	영업이익 절대액과 남은 사업의 수익성을 함께 비교
회계 비용 / 현금 지출	손상차손을 현금 손실 전액으로, 또는 무의미한 비용으로 해석	비현금 부분과 실제 지급액·시점을 구분
연결 이익 / 배당 재원	자회사 개선분을 홀딩스 현금에 바로 더함	현금 회수·재투자·배당 결정과 귀속 범위를 확인
회수액 / 반복 효과	재고·자산 회수로 늘어난 일시 현금을 영구 절감으로 처리	첫해 회수와 이후의 반복 현금 개선을 분리

분석 | 지주회사 관점의 성과는 “쓸 수 있는 현금”의 질이다

정리 뒤 생긴 여력이 다시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묶이면 효과는 약해진다. 반대로 검증된 사업의 성장과 재무 안정에 쓰이면 포트폴리오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의 가치는 철수 자체보다 그 이후의 자본배분 규율에 달려 있다.



09 / OUTLOOK & CHECKPOINTS

매출을 포기한 결정, 현금으로 증명할 차례다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이제 공시 문구가 반복 가능한 성과로 바뀌는지 본다.

종합 판단 | 한계사업 정리는 성장 포기가 아니라 성장의 조건을 고르는 일

OCI홀딩스의 TDI 사업 정리를 수익성 중심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평가한다. 기존 반도체 소재의 확장 기반도 있어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방향이 보인다. 다만 이번 한 건으로 그룹 성장성이 새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리 비용 통제와 남은 사업의 현금창출력이 다음 판단의 중심이다.

단계	방향을 뒷받침할 증거	판단을 약화시키는 신호
정리 실행	중단 일정 이행, 비용·충당 범위 구체화	종료 지연, 예산을 넘는 현금 정리비
비용 구조	잔존 고정비 감소, 유지투자 부담 축소	가동 중단 후에도 비용·투자가 계속 남음
남은 사업	반도체 소재의 고객 인수·판매·가동률 개선	증설 이후 낮은 가동률, 승인 지연·가격 압박
그룹 현금	영업현금과 자본배분의 일관성	이익률만 개선, 재고·채권·차입 부담 확대

우측 항목은 향후 점검 조건이며, 해당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다.

시간을 나누면 확인할 것도 달라진다

기간	관찰의 중심	상태
2026년 4분기	TDI 중단 일정·일시 비용·자산 및 계약 처리	중단 예정 12월 18일; 변경 가능 [1]
중단 이후	같은 범위의 고정비·유지투자·현금 개선	효과는 아직 미확정
후속 사업 발표	인산 증설 완료·고객 승인·신사업 상업화	진행·계획과 실제 매출을 구분 [3]

투자자가 가져가야 할 결론: 단기 제품 가격이 좋아도 자본의 장기 수익성이 낮다면 철수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그 규율을 보여줄 수 있는 출발점이다. “줄어드는 매출”보다 “다시는 묶이지 않을 현금”과 그 다음 사용처를 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관점이다.

제공 범위: 사업구조·성장성·수익성 분석,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주가·목표주가 및 개인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는다.



10 / SOURCE REGISTER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의 청록색 번호와 아래 제목을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한다.

01. 스페셜타임스 | OCI홀딩스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6.09.29 11:12 · 공시 재현 보도 · 중단 대상·금액·결정일·예정일

02. 데이터투자 | OCI, 1179억원 규모 TDI 제조·판매 중단 결정

2026.09.29 11:01 · 공시 보도 · 중단 매출·비교 기준·예정 일정

03. OCI(주) | 전북 반도체 초고순도 화학소재 특화단지 앵커기업 참여

2026.09.29 게시 · 공식 발표 · 기존 생산능력·인산 증설 진행·신사업 계획

04. 연합뉴스 | OCI 2분기 매출 5천350억·영업이익 433억…흑자 전환(종합)

2026.07.22 15:24 · 회사 잠정실적 발표 보도 · OCI(주) 손익·TDI 판매 회복 배경

05. 머니투데이 | OCI홀딩스, 2Q 흑자전환…태양광 밸류체인 증설로 호실적 이어간다

2026.07.23 17:19 · 회사 실적 발표 보도 · 연결 손익·미국 태양광 프로젝트 성과

06. OCI홀딩스 | 계열사 소개

2026.09.29 열람 · 공식 사업 구조 · 지주회사 역할과 주요 계열사

07. OCI(주) | Products — TDI

2026.09.29 열람 · 공식 제품 설명 · 폴리우레탄 원료와 적용 시장

08. OCI홀딩스 | Advanced Materials

2026.09.29 열람 · 공식 화학사업 전략 ·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방향

자료 인용 및 적용 기준

영업정지 관련 사항은 공시 내용을 수록한 보도 [1]·[2]를 인용했다. 재무 수치는 회사 실적발표를 인용한 보도 [4]·[5] 기준이다. 인용 자료와 원 공시·정기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원 공시·정기보고서를 우선한다.

[관련 공시\(DART\)](#) / [OCI 공식 뉴스 목록](#) /

회사 설명은 회사가 밝힌 현황·목표로 인용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9월 17일, 해당 기업 발표 게시일은 9월 29일이다. 자료 간 기간·기업·회계 범위를 섞어 합산하지 않았다.



11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보고서 이용 안내

확인한 사실, 회사 계획, TradeLens의 해석과 가정 계산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분석 기준일	2026.09.29. 당일 사업 중단 보도·공식 사업 발표와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 보도를 사용.
기업·재무 범위	OCI홀딩스와 OCI(주)를 구분. TDI 비중의 분모는 OCI(주) 2025년 연결 매출. 2분기 손익은 회사별 연결 발표 범위.
자료 인용 기준	공시·재무 수치는 관련 보도, 사업 현황·전략은 회사 공식자료 기준. 세부 출처와 적용 범위는 11쪽 참조.
가정 모델	6 - 7쪽 현금 영업기여·유지투자·잔존 비용·정리현금은 설명용 임의 값. 실제 TDI 비용·실적 전망 아님.
제공 범위	사업·산업 분석에 한정.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주가·목표주가 및 개인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음.

환산: 1억원 = 100,000,000원. 비중은 원수치로 계산한 뒤 반올림. 가정 모델은 세금·할인과 실제 집행시점을 반영한 기업가치 산정이 아니다. 표·도식은 재작성했으며 원기관의 승인·보증을 뜻하지 않는다.

작성 안내: 본 보고서는 자료 조사·분석 및 본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했습니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기술·산업 및 기업의 사업구조·성장성·수익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주가·목표주가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추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